

# Samil Flash

## 금융산업의 부정 예방과 적발: 증권투신산업 사례를 중심으로

### I. 금융 산업의 부정 예방과 적발 개요

국내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대형사고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1. 개요

금감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이후 3년간 연평균 47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고, 영업일수 기준으로 보면 매일 1.9건씩 발생하여, 국제 금융 시장에서도 금융사고 다발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대형사고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회사에 끼치는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증권사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및 외국계 증권사 국내지점 54개사에서 2004~2005년 2년간 총 3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사고액은 648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04~2005년의 해당 증권사의 영업수익 평균의 약 6.5%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II. 경제적 범죄 유형과 사례

일반적인 경제적 범죄 유형은 이익조작을 위한 경영자의 부정과 직원에 의한 부정으로 구분되며, 업종별로 다양한 사례가 존재함

#### 1. 일반적인 경제적 범죄의 유형

금융 산업에서 발견되는 경제적 범죄의 유형은 크게 이익조작을 위한 부정과 직원에 의한 경제적 횡령으로 구분됩니다.

- (1) 이익 조작을 위한 경영자의 부정: 가공 매출 또는 수익의 조기 인식, 비용의 누락 또는 지연 인식 등 경영진이 기간 손익을 조정하는 행위
- (2) 직원에 의한 범죄: 고객 자산을 횡령/유용하거나, 부당한 커미션을 수취하는 행위

#### 2. 업종별 특이 거래

- (1) 은행/보험업: 주로 불법대출에 관련된 부정이 많으며 보험업에서는 보험료 및 제 지급금에 관련된 횡령이나 보상 관련 사고가 주로 발생함.
- (2) 증권 투신업: 고객으로부터 위탁 받은 펀드를 과도하게 거래하는 Churning 이나 다른 회사 또는 개인구조를 통해 일시적으로 증권을 판매 위탁한 후 다시 환매하는 거래인 Front Running, 승인 받지 않은 고객 자산의 매매, 시장 가격 조작, 주식옵션 관련 부정 행위 등이 주로 발생함.

#### 3. 국내외 주요 사례소개 - 증권투신업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A사:** 임직원들이 공모하여, 가공거래와 장부 조작을 통해 외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덮고, 부채를 과소 계상함. 그 결과 6명의 임원이 해고되었고 당사자는 7.5년의 징역과 5년간 100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음.
- **B사:** 증권거래소의 브로커리지 전문업체들이 고객의 거래주문 없이 고객의 돈으로 주문을 성사시키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수익을 발생시킴. 4년간 최소 \$150 million 이상의 이익을 불법으로 취득함. 5개 전문 브로커 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41.8million의 벌금을 지불함.
- **C사:** 모 증권사의 주식 결제부 직원들이 공모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74억 상당의 법인 고객의 상장 주식을 사고자의 증권계좌로 이체 또는 현물 출고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단말기의 책임자카드와 비밀번호를 평소에 본인에게 맡겨 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점을 이용하여 책임자 승인까지 직접 실행함.
- **D사:** 파출 수납(직접 돈을 받고 입금해주는 거래)과 자금관리 업무가 분장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법인고객으로부터 파출 수납한 수익증권 매입자금 40억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여 횡령하고, 고객에게는 위조된 통장을 교부하여 적발을 피함.

### III. 부정예방과 리스크 상시 모니터링

부정 예방을 위해 효과적인 내부통제의 설계 및 운용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인 내부통제의 설계 및 운용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PwC 에서 발간한 “Key Element of Antifraud programs and controls” 백서에 의하면 적절한 내부통제 활동은 여러 부정 징후로부터 회사를 보호해 줄 수 있으므로, 부정 통제 활동이 일상적인 프로세스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내부통제 활동 및 리스크 관리체계는 회사의 환경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회사들은 부정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의 구축과 함께, 이미 발생된 부정을 가능한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내부통제제도를 정착시키고, 리스크를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체계적인 내부통제제도를 정착시키고, 회사에 내재하는 리스크의 소재와 규모를 파악하여 사전적으로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리스크 모니터링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정징후거래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조치보다는 전사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거래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계와 툴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제도 및 리스크 모니터링 관리체계는 부정의 적발 및 예방뿐만 아니라 회사의 가치 증진과 고객 만족도 제고, 업무프로세스 개선, 비용 절감 등의 목적도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준수하도록 경영진, 종업원, 공급자, 고객 모두를 장려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 IV. 부정 발생 시 조사 및 대응

부정사례  
적발 시 객관  
적이고 전문  
적인 조사를  
통한 영향 분  
석과 개선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함.

선진국의 경우 감독, 규제기관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개선조치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부정 사례가 보고되면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조사가 보편화 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금융기관 자체 조사로 종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부정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절차를 거쳐 대응함으로써 더 큰 위험을 미연에 예방하고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는 토대로 작용되게 될 것입니다.